■ 달라진 추석 풍속도

‘궨당’ 모이던 모둠벌초·명절은 이젠 옛말

최근 30년 고령화·핵가족화 제주 공동체 문화 급변
추석 전 모둠벌초 대행에 가족벌초 빠지기는 다반사
부모가 서울로 ‘역귀성’에 차례 지내지 않고 여행도

‘추석 풍속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1인가구가 급격하게 늘고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것도 이젠 옛말이다. 추석상을 차리지 않거나 간소화 하고, 이맘때 연례행사인 벌초도 전통을 고집하는 이들만의 몫으로 돌아간다. ‘궨당’(친척)이 모이던 모둠벌초와 명절은 이미 과거의 모습이다.

추석은 매년 음력 8월 15일로 ‘한가위’, ‘중추절’, ‘가배’라고도 불린다.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가을의 풍요로움에 감사하고 조상에게 예를 표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이다.

추석의 유래는 신라 제3대 왕 유리 이사금 때 궁중 여인들이 베 짜기 대회를 통해 시작된 ‘가배(嘉俳)’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가을 한가운데 가장 큰 날’이라는 의미다.

추석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조상 산소에 대한 벌초가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예전에는 아이들까지도 벌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주만의 ‘벌초 방학’이 존재했다.

제주에서 살다보면 입도조묘 벌초에 문중 벌초, 가족 벌초까지 이맘때만 되면 벌초로 주말과 휴일은 반납해야 할 정도다. 하지만 최근 세태는 사뭇 다르다. 일부 제주에서 사는 몇몇만이 일을 도맡아 하거나 돈을 주고 벌초를 대행하는 일이 다반사다. 농협이나 일반인들이 벌초 대행에 나서면서 ‘정성’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 됐다.

가족묘 벌초라고 해도 ‘휴가를 내야 한다. 항공권 예약이 어렵다’며 일정 조율이 안 되는 데다, 가족간 재산분배 문제 등에 따른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일 년에 한번 하는 벌초에도 동참하지 않는 사례가 적잖다. 실제 A씨의 집안처럼 가족 벌초를 하는데 집안 3곳에서 가족 묘지 한 필지를 1/3로 쪼개 벌초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한 조상에서 시작된 혈연관계가 무너지고 있다.

추석 차례상을 차리지 않는 곳도 급격히 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가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이와 같은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쐐기’를 박았다. 몇 년간 거리두기가 이뤄지며 저마다 집에서 간단하게 차례상을 차려 지내다보니 차례를 지내지 않거나 간소화하는 게 최근 트렌드로 굳어졌다. 부모가 타지역에 사는 자식이 있는 곳으로 ‘역귀성’하거나 가족여행 역시 대세다.

간소화 사례는 대체적으로 집집마다 돌며 하던 차례를 큰집(종갓집)에서 한번만 치르는 경우다. B씨 집안처럼 가족묘에서 차례를 지내기도 한다. 집집마다 음식을 조금씩 챙겨와 차례상에 올려 차례를 지내고 난 후 음식을 나눠먹고 헤어지는 방식이다. 경제적 부담도 적고 차례도 금세 끝난다.

22일 행정안전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인구는 30년 전인 1996년 50만명에서 올해 66만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인구는 66만2681명이며 세대수는 31만7767세대다. 세대당 인구는 2.09명. 고령인구는 13만7900명으로 20.8%를 차지한다. 제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고령화 속도는 빠르다.

때문에 추석명절 등 오랜 기간 면면히 지켜온 풍습도 언제 사라질지 모를 위기에 처했다. 문제 해결책은 세대간의 이해와 소통뿐이다. 그래서 추석 차례와 벌초는 이번 추석 연휴의 화두 중 하나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주항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18명 무더기 검거

제주항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국적의 불법체류자 18명(남성 13명·여성 5명)을 검거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5시 45분쯤 “제주항 2부두에서 주차된 승합차 3대에 외국인 여러명이 타고 있다”는 범죄 의심신고로 출동한 해경과 육경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차량에는 35명이 타고 있었는데, 신분을 확인한 결과 이 중 18명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력사무소를 통해 모집돼 어선 그물작업을 할 목적으로 제주항에 모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어선에 고용되기 전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경계성지능장애학생 1대1 맞춤 지원

기초학력지원센터 ‘성장ON’ 운영

제주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가 경계선지능학생을 위한 ‘성장ON(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임상심리사, 언어재활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인지·사회정서지원단’이 학생 특성과 필요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올해 대상 학생은 초중고 45명이다.

지원단은 학생별 심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담임교사, 보호자에게 학생 특성과 지도 방향을 안내하고 있다. 방과 후 주 1~2회, 학생 1인 당 20회 내외의 1 대 1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전문기관 접근이 어려운 읍면지역과 원도심 학교 학생들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생들을 만나고 있다.

이와 연계해 지난 17일에는 전문가 자문협의회가 개최됐다. 학생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학교와 가정의 연계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지은기자

소규모 말 사육농가 방역 지원

한국마사회, 20마리 미만 농가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가 제주지역 말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산목장 방역 기반 구축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육두수 20마리 미만의 소규모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마사지역 방역 및 소독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진드기약 등 방역약품 지원 및 농가 맞춤형 방역 컨설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6일 말 생산목장 2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 지원을 진행했다. 이날 방문에서는 전문 업체를 통한 소독 방역 용역을 제공하고, 마사지역에 대한 집중 소독과 함께 방역약품을 전달했다. 또한, 농가의 상황에 맞춘 전문적인 방역 컨설팅을 제공하여 제주지역 목장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이번 방역 기반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방역 인프라가 취약한 소규모 생산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방역망 구축을 통해 제주지역 말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제주도내 생산목장은 20개 농장에 한해 선착순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며 자세한 접수 방법 및 지원 내용은 관련 기관 문의(064-786-8342, 월·화 휴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영석기자

빨간 꽃무릇의 유혹 22일 제주시 신산공원에 꽃무릇이 빨간 자태를 뽐내며 활짝 피어 오가는 이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시민단체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풀뿌리원탁회의 제도화 촉구

제주지역 13개 시민단체들이 ‘풀뿌리원탁회의’의 제도화와 이를 담은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년의 꿈을 여는 사람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YWCA,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등 13개 단체는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이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3대 핵심 요구사항으로 ▷정부 참고조례의 주민 권한, 후퇴 없이 전면 수용 ▷주민총회 결정 권한에 ‘제도 개선 건의권’ 추가 ▷주민 누구나 참여하는 ‘풀뿌리원탁회의’ 신설 및 지원 규정 명시를 제시했다.

이들은 “행정 편의를 이유로 주민 권한을 축소해서는 안 되며, 참고조례의 권한 규정은 주권자의 기본 권리인 만큼 그대로 조례에 반영돼야 한다”며 “주민이 주민자치·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 결정권한 사항에 ‘주민자치제도 및 지방자치 제도 개선 사항 건의’를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청년,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인 등 누구나 주민 5인 이상이 모이면 자발적으로 원탁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운영·지원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라”며 “원탁회의에서 토론한 의제를 주민자치회에 제안, 50인 이상의 연서로 주민총회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도 보장하라”고 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晉州姜氏 濟州道宗會 晉瀛祠 大祭 奉行 案內

2026년도 진주강씨 진영사 대제 봉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숭조돈목의 자리가 되도록 많은 현종님들이 참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6년 10월 3일(토) [대제봉행 : 10시]** 장소 **진영사** (제주시 아연로 41)

도종회장 **한 진**

■ 집전위원
- ㅇ 위 원 장 : 도종회장 **한진**
- ㅇ 부위원장 : 상임부회장 **용석**
- ㅇ 위 원 : 부 회 장 **경일, 수길, 영남, 춘화, 성화**
- ㅇ 감사위원 : 감 사 **희경, 재탁, 택주**

■ 실무위원
- ㅇ 총 괄 : 종무국장 **신호**
- ㅇ 부총괄 : 회관건립사무국장 **동훈**
- ㅇ 진 행 : 집 례 **주택**
- ㅇ 의 전 : 총무부장 **동훈**, 총무차장 **승우**
- ㅇ 접 수 : 재무부장 **동현**, 재무차장 **봉효**
- ㅇ 시설 및 정리 : 조직부장 **경찬**, 조직차장 **필철**, **도청년회**
- ㅇ 집행상황 점검 : 사업부장 **경한**, 사업차장 **성철**
- ㅇ 사진 및 보도 : 홍보부장 **영남**, 홍보차장 **봉석**

초헌관 (충정공파) **순 우**

아헌관 (염통악파) **태 희**

종헌관 (정랑공파) **택 종**

전사관 (정랑공파)	신 호	찬 창 (충정공파)	상 택	전 작 (염통악파)	윤 호
집 례 (염통악파)	주 택	알 자 (충정공파)	상 헌	봉 작 (정랑공파)	봉 효
대 축 (정랑공파)	성 화	전 작 (염통악파)	언 민	봉 작 (정랑공파)	보 민

※ 연락처 : **종무국장 신호**(010-3698-3939)

晉州姜氏 濟州道宗會 會長 漢珍